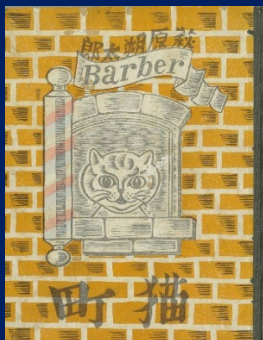


“고양이 마을” 사쿠타로와 세타가야

1931년,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가족과 함께 세타가야구의 시모키타자와로 이사했으며, 2년 후에는 다이타에 집을 새로 지어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쓴 단편소설로 “고양이 마을”(한가소 1935년)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고양이의 정령들만 사는 마을’에서 헤매는 주인공의 기묘한 경험이 섬세하고 예민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동네 거리 한가득 고양이 대집단이 바글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어디를 봐도 고양이뿐이다.’(“고양이 마을”)

소설은 여행에 관심을 잃은 주인공이 근처 마을에서 꿈같은 광경을 엿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은 결과, 평상시의 마을 풍경을 착각해서 모르는 마을을 헤맸다고 믿습니다. 그 후 ‘하나의 사물이지만 시선의 방향을 바꾸면 두 개의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착각을 일으킨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적인 현실의 풍경을 뛰어넘은 <색다른 세계>를 꿈꾸는 주인공의 모습은 사쿠타로 시 인생의 발자취와도 겹칩니다.



“고양이 마을”(1935년 한가소 표지 그림: 가와카미 스미오 표지 디자인안: 하기와라 사쿠타로)